



圖 第1回 冊의 文化 세미나 基調演說

中進國에 들어선 韓國社會와 讀書

李 萬 甲

서울大大學院長

讀書는 좋은 것인가?

讀書는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1972年을 「世界 圖書의 해」로 정하여 汎世界的으로 圖書의 제작, 보급, 정리, 보관 등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바가 있다. 또 나라마다 讀書를 권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가을이면 燈火可親의 계절이라 하여 讀書의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讀書는 언제나 누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秦始皇은 儒書를 모두 태웠고, 全體主義國家에서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圖書의 제작은 물론 그것을 읽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自由를 지향하는 國家에서조차도 무슨 책이든지 읽을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國家가 아직 軍事的으로 政治的으로 또는 다른 어떤 측면에서 튼튼하지 못할 때에는 國家의 기본적인 理念에 반하는 책을 읽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個人的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모든 책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차타테이 夫人의 사랑」과 같은 책을 가지고도 文學이다 외설이다 하고 論爭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文學的인 作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순간적인 好色的 關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에 대해서는 억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쉬운 것이다. 아직 自己行動을 스스로 규제하고 自己行動에 대해서 責任을 질만큼 教養과 倫理意識을 갖추고 있지 못한 少年들에게 그런 책들이 쉽게 제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읽는 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社會全體에게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이다.

毒藥도 藥으로서 쓸때가 있기 때문에 제조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해로운 작용을 하기 쉬운 책도 받드

시 사용가치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않다. 반대로 좋다고 알려진 책도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든지 유익한 구실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科學과 技術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그것을 억제하거나 혹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책만 제작하여 보급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길게봐서 해로운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科學과 技術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社會 속에서 疎外現象이 심해지고 있을 때 科學과 技術만이 중요한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책은 그 社會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때 좋았던 책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時代에 부합하고 혹은 새로운 事實을 정확하게 수록하도록 고정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良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古典에 속하는 窮極의인 原理에 관하여 論한 獨創性을 가진 書籍은 설사 그것이 그 時代에 맞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事實을 수록하고 설명한 書籍들은 새로운 狀況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書籍은 科學圖書, 教科書 등에서 많은 듯하다.

이처럼 책은 거기에 들어 있는 內容, 그 內容에 접하고자 하는 사람의 目的, 그가 놓여 있는 狀況에 따라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現代社會에서는 必須不可缺의 行動으로 인식되어 있다. 책을 읽지 않고서는 社會生活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知識을 가질 수가 없고, 적절히 思考를 할 수가 없으며, 자기의 人格을 가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讀書는 그 자체가 즐거움, 즉 娛樂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과 讀書環境

아는 것이 힘이라고 외치면서 文盲退治와 啓蒙事業을 벌인지 한 世紀 가까히 지난 오늘날 韓國에서는 社會的인 責任을 지고 活動을 하는 사람 중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政府의 統計를 분석해 보면 1967年에서 1977年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나라의 國民學校 兒童數는 538萬에서 551萬名으로 거의 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中學校學生數는 91萬에서 220萬으로 約 2.4倍 늘었고, 人文高校의 學生數는 26萬에서 80萬으로 約 3倍, 實業高校의 學生數도 18萬에서 56萬으로 역시 約 3倍 늘고 있다. 大學生의 數는 12萬에서 25萬으로 2倍 증가하였다.

이 統計數字는 高度의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教育水準이 얼마나 向上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初等學校 學齡에 있는 兒童이 거의 늘고 있지 않는 까닭은 이미 그 學齡兒童의 거의 모두가 學校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自然增加分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中學校學生數가 2.4倍로 늘어났는데 비해서 人文系와 實業系의 高校生이 각각 3倍 늘었다는 것은 이미 初等學校를 졸업한 學生들이 中學校教育에 그치지 않고 차차 高校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더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면 高校에의 進學率의 증가추세는 감소하고 大學生數의 증가추세가 강해질 것이다.

國際聯合의 世界統計年鑑을 보면 日本(1974年 統計)의 人口는 韓國(1975年 統計)의 人口의 3.2倍인데 初等學校 兒童數는 韓國의 그것의 1.8倍이며 中學校學生數는 2.9倍, 專門·大學生數는 7.3倍이다. 또 美國(1975年 統計)과 비교하면 人口는 6.2倍인데 初等學生數는 4.6倍이고 中等은 6.3倍, 專門·大學은 34.4倍로 되어 있다. 이 統計數字는 初等教育의 進學率에 있어서는 韓國이 日本이나 美國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中等教育, 專門·大學 教育에 갈수록 낙후되고 특히 專門·大學 教育에 있어서는 韓國이 美國보다 엄청나게 처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人은 유난히 教育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筆者가 최근에 農村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들의 最大關心事는 營農이나 住宅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子女의 教育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子女들을 좋은 學校에 보내서 훌륭한 教育을 받고 社會에서 出世토록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甘受할 생각이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的인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大學에 가려는 사람의 數는 더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政府가 重化學工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른바 高級頭腦를 가진 사람의 育成에 부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經濟發展과 教育水準의 향상에 따른 各級學校의 學生數의 構成이 변함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圖書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教育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初等教育만을 받은 사람이 大部分이고 中等教育을 받은 사람조차도 얼마되지 못하며 또 그들의 家庭에서의 所得이 높지 않은 時代에 있어서는 圖書는 主로 教科書와 參考書 그리고 基本的인 敎養과 娛樂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所得水準과 教育水準이 높아지고, 專門的 職業이나 管理的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증가하며, 社會的인 活動의 舞臺가 海外에까지 넓게 擴大되면 多方面에 걸쳐서 새로운 專門的 知識을 提供해 주는 圖書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敎養圖書도 수준이 높고 多樣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教育에 대한 關心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圖書의 種類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의 經濟發展과 教育向上에 비하여 圖書館數는 1967年에 3,618개소였던 것이 1977年에 4,312개소로 1.2倍밖에 늘지 않았으며, 座席數도 23萬席에서 35萬席으로 1.5倍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藏書數는 같은 기간에 1,266萬권에서 2,252萬권으로 1.8倍 증가하고 있으나, 中學校 또는 大學生數의 增加率에 비하면 상당히 처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學生들이 전보다도 더 나쁜 讀書 環境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參考로 韓國의 圖書館 시설을 美國 및 日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1974年 현재 韓國의 圖書館數가 4,084개소인데 비해서 美國의 圖書館 및 는 86,742개소로 21배나 되며, 日本은 역시 1974年에 42,784개소로 10배나 많은 것이다. 한편 圖書館의 藏書數는 1974年 현재로 美國이 韓國의 66倍이고 日本은 18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세 나라의 主題別 全體書籍發行點數를 비교하면 韓國은 1973年에 7,396點인데 비하여 美國과 日本은 각각 35,177, 39,857點으로 둘다 4.8배에 달하고 있다. 美國이나 日本과 같이 高度로 발달한 복잡한 社會에서는 그만큼 여러가지 種類의 情報를 提供해 주는 書籍을 필요로 하는데 韓國은 아직 그 정도로 다양한 情報를 提供할 圖書를 발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高級頭腦 養成의 緊急性

이상에 제시한 統計數値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韓國에서의 教育은 初等教育의 量的 膨脹에서 中等教育의 量的 膨脹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高等教育의 量的 膨脹으로 轉移해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에서는 教育熱이 극히 강하여, 누구나 子女를 大學에까지 보내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을 志望하는 學生의 數는 더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大學教育의 量的 膨脹의 추세가 강해지게 될 이유는

國家的인 측면에서도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初期의 經濟發展은 初等教育만 받은 사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保稅加工을 주축으로 하는 產業으로 가능했고 그 다음 단계의 經濟發展은 中等教育만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어느 정도의 知識과 熟練을 요하는 產業을 성장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이상 더 經濟發展을 하려면 높은 水準의 技術과 복잡한 企業組織體를 管理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企業體가 거대하고 각 部門들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 또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心理는 미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國際的인 競爭力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品質의 向上이 요구되고 有能한 人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高級頭腦를 가진 人力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비단 經濟的인 필요에서 뿐만 아니고 安保的인 필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以北의 共產集團은 항시 南侵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對備는 다른 어떤것보다 우선한다. 지금까지 韓國의 安保는 크게 美國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安保는 他國에의 의존으로서서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라 他國의 支援이 감소하거나 해소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安保를 自力으로 감당할 능력을 키워 갈려면 防衛產業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飛行機, 艦船, 透導彈 通信器材, 그밖의 각종 特殊兵器를 設計·製作할 수 있는 高級技術者와 管理者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을 양성하려면 實驗施設과 圖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圖書가 없이 大學教育을 한다는 것은 銃이 없이 軍事訓練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우기 大學院教育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런데 韓國이 計劃的인 經濟發展을 시도하기 전에 있어서는 大學院教育이란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충실한 설비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특히 人文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선 蒼後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碩士課程은 있어도 착실하게 講義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學位論文도 엄격하게 심사되지 못하는 경향이 혼하였던 것 같다.

日本에서는 東京大學과 같이 큰 大學이 아니라도 웬만한 크기의 綜合大學이면 海外에서 발행되는 學術的인 定期刊行물은 대체로 6천種 정도는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는 되지 않으면 綜合大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서 第一 크다고 하는 서울大學校圖書館이 비치하는 學術的인 外國定期刊行物의 종류는 약 2천種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大學校가 해방후 30年동안에 수집한

圖書數는 京城帝大가 20年동안에 확보한 圖書數와 비슷하다. 그런데 京城帝大의 學生數와 學科數는 지금의 서울大學校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적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學術的인 書籍이 많이 발행되지 못한 시대였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많은 圖書를 소장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 大學에서의 圖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美國에서 오늘날 보통 크기의 州立綜合大學에서 圖書 구입을 위한 年豫算額은 대체로 100萬弗 내외일 것이다. 예일大學校에서는 1972년의 圖書豫算이 170萬弗이라고 하였다. 그에 비해서 서울大學校의 圖書購入 國庫豫算은 1979년에 상당히 증액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약 2億4千萬원 정도이며 學生들로부터 징수하여 圖書購入에 충당하는 돈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2億9千萬원, 즉 60萬弗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韓國에서는 外國書籍을 구입하는데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다. 우선 圖書情報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 가장 좋다고 하는 책을 싸게 사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送料와 手數料도 많이 들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大學校에서는 적어도 美國의 보통 州立大學校 정도로 책을 구입하려면 약 7億원 정도를 필요로 하며 과거에 사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려면 1億원 정도 더 부가해야 할런지 모른다.

筆者 자신이 자기가 담당한 大學院講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울大圖書館에서 貸出하려고 찾아본바 10種 중에서 2種밖에 수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10種의 圖書는 최신의 것도 아니며 稀貴하거나 引用이 될 되는 것도 아니었다. 碩士課程의 그 題目講義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자주 참고되는 圖書인 것이다. 그런 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소장되어 있지 않으니 大學院教育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韓國에서 제일 우수한 人材들이 모이고 거기에서의 圖書館 시설이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大學校의 상황이 이렇진대 다른 大學의 상황은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韓國은 이제 中進國에 들어서서 보다더 치열한 國際的인 競爭을 하게 되고, 自主的인 安保態勢를 확립해야 할 要請이 다급해짐에 따라, 量的 擴大를 止揚하여 質的 向上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點에 도달하고 있다. 讀書에 관한 한 初等·中等教育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책을 공급하지 않아도 별로 지장이 없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高級頭腦를 가진 人力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게 되면 중요한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필요한 새로운 情報에 어두운 사람

이며 따라서 國內的 國際的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內容은 엉터리라도 大學 또는 大學院을 나오면 된다는 종전의 관념은 조만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期待되는 讀書條件의 改善

지금까지는 讀書에 관한 시설이 좋아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經濟的으로 빈곤하니까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을 마음이 날 수도 없었거니와 책을 사볼 돈도 없었다. 그리고 책을 사볼만큼 教育을 받은 人口도 많지가 않았다. 거기서 책을 사보는 사람은 주로 入學 준비를 하거나 資格試驗을 치려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이 보는 책은 教科書와 教科書를 풀이한 參考書였다. 그밖에 趣味와 娛樂를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先進國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지가 않았다. 더우기 깊은 教養이나 職業生活에 관련된 專門性을 띤 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讀書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첫째의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自主國防을 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兵器를 제작하여, 韓國을 둘러싼 安保情勢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外交政策을 세운다거나 經濟的인 國際競爭力을 증진하여 계속적인 經濟成長을 도모하려면 高級學校卒業證書의 소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高級頭腦를 소지한 者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필연적인 要請에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大學院 中心의 教育에 중점을 두고 알맹이가 있는 專門教育과 研究를 추진하려는 大學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를 위한 圖書資料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것은 經濟發展이 이루어짐에 따라 책을 살 수 있는 經濟的餘力이 個人的으로나 團體的으로나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긴 사람들이 읽지도 않으면서 豪華版 叢書를 應接室에 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지만, 여하튼 책을 살 수 있는 經濟的인 餘力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知性을 걸어나마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살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工夫를 하기 위해서 또는 工夫를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거나 자기의 子女에게, 혹은 자기의 學校圖書館에, 그리고 自己의 會社圖書館에 더 많은 책을 사주고 비치하려 할 것이다.

세째로 사람들의 關係樣式과 關心事가 달라지기 때문에 讀書傾向이 강해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오늘의 社會에서는 사람들이 巨大한 官僚的 組織體에서 서로 유기적인 關係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의 중요한 話題는 매스·콤이 전달한 내용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그 話題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토론을 한 다거나 적어도 그 話題를 둘러싸고 풍요있는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토론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知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높은 教育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관심을 표시하는 內容은 높은 學問的 背景을 가져야만 다룰 수 있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讀書를 하는 자극을 받는 度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째의 이유는 讀書가 가장 값싸고 有益한 娛樂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高度로 産業化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人口層은 에리트와 大衆으로 分化된다고 한다. 에리트는 自主性을 가진 사람들이고 指導的인 役割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서 大衆은 매스콤이 一方的으로 전달하는 劃一的인 通信內容을 받아들이는 外部志向的인 사람들이고 自主性이 약하며 無氣力하다고 흔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大衆이라고 해서 자기의 人格을 훌륭하게 가꾸고 자기의 人生을 훌륭하게 가꾸고, 자기의 人生을 의미있게 보내려는 의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자기의 內面的인 世界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려고 할터인데 廉價文庫本들이 많이 발행되므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결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 더우기 工業化가 진전하던 서어비스에 지불해야 할 代價가 비싸진다. 또 群衆에 끼어 娛樂를 즐긴다는 것은 오히려 心理的으로 괴롭고, 번잡하며, 不安스럽게 여겨지기 쉽다. 메로는 公害와 交通難으로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讀書를 무엇보다도 무난하고 즐거운 취미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 아닐까도 생각되는 것이다.

現代는 變化의 時代이다. 모든 것이 스피디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技術과 知識의 발달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技術과 知識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工業化, 그 工業化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都市의 巨大化, 管理組織의 官僚化, 大量通信의 발달,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人間關係의 非人格化와 疎外의 深化에 의해서 人間은 모래알과 같이 되어 據點 없이 무미진조한 生活을 하게 되므로 아카데미즘과 테크놀러지에 진절머리를 내고 自然에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리라 보는 견해가 있다.

많은 사람이 現代의 物質的인 機械文明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未來를 내다 보는 많은 學者들은 역시 知識과 技術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情報化의 경향은 더 촉진되리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정확한 것을 신속히 알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要求에 대

응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발전하여 앞으로는 책에 실린 內容이 컴퓨터에 의해서 보존되게 되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情報를 직접 컴퓨터의 터미널에 신청해서 얻게 되고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情報의 量은 줄어 들든지 모른다. 그리고 個人이 소장하고 이용하는 情報은 活字로 된 책이 아니라 카세트形體의 비데오 테이프가 되며,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內容이 될런지 모른다. 그것은 이미 技術的으로 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著者에 대해서 著作權使用料에 해당하는 報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이 實用化하는데 가장 큰 問題라고 한다.

그런 것이 技術的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實用化되어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까지 책은 존재할 것이고 책을 읽는 경

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또 컴퓨터화가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라디오가 新聞을 구축못하고, TV가 라디오를 구축하지 못한 것처럼 컴퓨터가 책을 구축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情報를 제공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뿐이지 情報를 원하는 사람들의 要求가 감소할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讀書를 싸게 쉽게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讀書를 하는데 관련된 圖書館 시설을 발전시켜야 하며 또 有益한 情報를 담은 책을 아름답고 보기 좋은 형태로 싸게 제작해서 공급하는 동시에 그런 책을 적절히 案内하고 그 책의 評價를 정확히 하여 그 책의 內容을 讀者가 옳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책의 內容의 질을 向上시키도록 하는 것이 요긴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社會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1979年版

韓國出版年鑑

大韓出版文化協會刊 · 값 10,000원

변화 발전하는 韓國出版界의 78년을 총정리한 한국 유일의 出版年鑑.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主要 收錄內容 —

概觀篇

一般單行本, 雜誌, 書店, 圖書館, 印刷, 製紙 등의 1年概況.

圖書目錄篇

78年 1月~12月末까지 全國 각 出版社에서 出版된 總圖書目錄 收錄.

統計·參考篇

1978年度 一般圖書月別種別發行量, 一般圖書種別發行部數, 一般圖書種別發行面數, 一般圖書種別發行價格, 文學圖書장르別月別種數, 翻譯圖書月別種別發行量, 最近 10年間(69~78年) 年·月別 圖書發行量, 全國 各級 學校學生數現況, 1978年度 國內製紙工場別紙類生產量, 標準規格版字들이速見表

諸法規篇

出版社 및 印刷所登錄에 관한 法律과 그 施行令, 教科用圖書著作檢認定令, 기타 教科書關係法規, 淫亂文書에 관한 法規, 新聞·通信 등의 登錄에 관한 法律과 施行令,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營業稅法中 圖書出版業에 관한 法令條文, 所得稅法中 出版業에 관한 法令條文, 著作權法과 그 施行令,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 文化藝術振興法, 大韓出版文化協會定款, 韓國出版金庫定款, 出版金庫出版資金融資規程, 韓國出版協同組合定款, 中央圖書展示館運營規程, 韓國圖書雜誌倫理實踐要綱

名簿篇

出版社, 雜誌社, 書店, 圖書館, 印刷所, 紙業商, 製紙會社, 新聞·通信社, 放送局, 關聯團體, 發行人(出版社代表), 製册所, 寫眞植字社, 寫眞製版社, 紙器社, 크당社, 金箔·비닐·크로지社

★ 圖書館에는 특별히 定價의 30% 割引으로 판매. 地方 圖書館에서 주문하실 경우에는 7,000원(小額換) 을 보내면 직접 우송해드립니다(郵送料 本協會 부담).

★ 注文處

서울시 중로구 사간동 105의 2 大韓出版文化協會管理部 73-5079